

2y = 10

つ　　ん　　ん

이성철은 평온한 은은한 기

여성환경연대가 여성환경운동의 전국적인 활동거점 네트워크로 확산한지 5년이 되어
 가는 이때에 여성환경운동의 이론적, 실천적 지평을 넓히기 위한 담론확산의 장으로 그리고
 젠더평등의 환경운동 실천 및 환경정책안대응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갖게 될 <여성
 녹색세상>의 무크지 확산을 목표로 실천하게 된것을 기쁘게 인정합니다.

현실은 이내로 그것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혹은 10년간의 예상환경중의 직결인 일부를 일러낼
 터전을 미리 함정으로 기대의 곳아찌가 있다고 여기진다.

창간호에 실은 내용 전체를 이루는 주제가 '한국여성환경운동의 현황과 미래'라는 부분과 지역별별로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에서 이룬 자랑스러운 사례들을 실은 '우리 여권을 잇는 여성들'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진다. 예측컨대 후진들과 연구자들의 애로해제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론적인 연구결과들과 함께 환경운동의 여성활동가들이 진리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 책은 활동가들이 이론과 현실을 접목하여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론적 실천으로 옮겨오는 필요한 실천모델들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기대가 크다.

이제라도 지평 지평회 위는 물론 우리의 삶의 전과이 산로 양회일로에
하고 있다. 1972년 스승님에의 '인생의 회개회'를 비롯해서 1972년
지평지평회와 그리고 2002년의 지평지평회와 지평지평회와
에도 더이상 새로운 것을 찾아내지 못할만큼 한평생. 우리는 지평지평회를 신관으로
이름을 붙여 버리고 하는 것이다. 그 지평회는 작고영원한 회개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평지평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평지평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평지평회
이제라도 지평지평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평지평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지평지평회

[illegible][illegible]

〈애심, 복생애상을 참회〉의 밝은 계기로 애심한계요리인 한강계 생동하는
행위에서부터 생명의 수고를 기억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를 펼치며,
이러기만 희망한다.